

石油의 世界史

- 黃金時代 -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

古代로 부터 석유는 여러가지 형태로 인간과 관계를 맺어 왔다.

그것은 생활에 없어서는 않을 경우도 있었으며 보잘 것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유는 현재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필수품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되었다. 20세기의 중반은 석유가 새로운 분야의 정복을 목표로 하고 출발한 特記할 만한 시대이다. 왜냐하면 석유의 마술사들이 수많은 중요한 마술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모든 과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근대석유산업은 국제적인 성격에서 본다면 위대한 宗派내지는 秘密宗派와 같은 것이다. 그것이 탄생한 것은 1859년 8월 28일-이날 드레이크가 펜실바니아에서 굴착에 성공하였다-로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제멋대로 한 것이라는 것이 종종 증명되었으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모두 관습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관습을 존중한다면 근대석유산업은 1959년에 탄생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위대한 世紀」의 탄생일이 뉴욕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 석유회의에 의하여 성대하게 축복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 이 기념할 만한 날에 석유는 영광의 절정에 있었으며, 석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두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렇지만 금년 석유업계도 변화에서 초연할 수는 없었다. 유럽인들은 1956년의 스웨즈動亂때에 잠자기 일어난 恐慌을 장기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들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행복감이 석유업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中東(이라크,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은 그 풍요한 석유를 세계로(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美國에 까지도) 공급하고 있었다. 베네수엘라의 생산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美國에서는 매장량의 감퇴를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으므로, 항상 이 나라는 세계석유생산량의 약 절반을 소비하였다. 산업계는 動力化·기계화 되었다. 공장은 重油로 전환되었고, 가정난방은 가스 또는 석유로 바뀌었으며, 또한 석유화학공장이 급속히 건설되었다.

◇황금시대가 구축되다

1956년 7월 26일 스웨즈運河會社의 국유화로 발단된 수에즈動亂은 같은 해 9월초 英·仏의 이집트 침공에 의하여 그 절정에 달하였다. 동시에 中東의 석유를 유럽에 수송하기 위한 동맥인 수에즈運河는 장기간 폐쇄되었다. 한편 이라크의 석유를 地中海연안으로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의 조업도 중단되었다.

西유럽으로의 석유공급은 날마다 감소하여 마침내 1/3로 줄었다. 대책은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직되었다. 공급源·수송·시장에 관한 이 국제적인 기구는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 질식직전의 유럽경제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석유탱커는 멀리 喜望峰을 우회하였다.

다른 탱커는 門戶를 크게 개방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로

● 大西洋에서 紅海로, 그리고 알제리아에서 차드에까지 퍼져있는 세계 최대의 사막에서는 특별한 徵候도, 분출하는 석유도, 또는 불의 샘도 결코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축척된 과학적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만 지하수 천미터의 深層에 숨겨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寶物을 밝혀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하라의 석유발견은 진정한 처녀지에서의 순수한 승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부터의 항로를 따랐다. 마지막으로 美國은 텍사스를 선두로 한 주요한 石油州의 「보존주의」에도 불구하고 단기 간이긴 하지만 다시 유럽에 대한 석유공급국이 되었다.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동안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은 약화되고, 공급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소비상의 제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석유가 다른 연료와 비교하여 高價였던 시기는 지난 갔던 것이다. 이윽고 위기는 완전히 안정되었으며, 그것은 지금에 와서는 이미 추억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 돌발적인 석유부족에 의한 타격은 西유럽사람들에게 중대한 심리적 영향을 주었다. 유럽의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그들의 문화, 생활양식 및 생활수준이 석유로 구축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들의 공급源이 약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석유탐사가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戰後 이탈리아는 포이溪谷의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방대한 가스사업을 추진하였다. 국영석유회사(ENI)는 모든 노력을 이 사업에 집중시켰다. 한편 시칠리아에서는 개인기업에 의하여 석유가 생산되었다.

獨逸에서는 많은 小油田, 특히 旧하노버의 產油지대에서 생산되는 석유는 이미 同國수요의 1/3을 공급하게 되었다. 지방의 생산량은 새로운 油井의 굴착에 따라 증가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954년에 프랑티즈油田 및 랑크의 가스田과 油田이 발견되었으며, 또한 파리盆地에서도 많은 小油田이 발견되었다. 프랑스는 점차 사하라에 탐사 노력을 집중시키면서도 본국의 南西지역의 油田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었다.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스위스에서도 필수품인 탄화

수소의 탐사가 추진되었다. 석유지질학과 굴착기술의 진보덕분에 이미 알려져 있는 堆積盆地의 조사에 다시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검은 아프리카도 재산목록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 이 대륙의 매장량은 처음에는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으나, 가봉, 나이제리아, 카메룬, 세네갈의 매장량은 장래에 매우 유망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 사막의 처녀지에서 성공이...

프랑스 석유회사와 공동개발을 추진하던 알제리아 석유탐사개발회사(S. N. PEPAL)는 1956년 1월에 하시메사우드油田을 발견하였다. 油田의 발견은 스펠들 탐, 바쿠 및 반더 데 오로油田들과는 비교될 수 없었으나, 처녀지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같은 해 7월에 사하라 석유탐사개발회사(C. R. E. P. S.) -로얄 더치 셀이 3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리비아 국경 가까운 지역에서 에줄레 자르자이티누產油地帶를 발견하였다. 그후 이들 지역에서는 더욱 새로운 굴착이 실시되어 그 매장량이 확인되었다. 이 덕분에 공급源이 갑자기 가까운 지역에서 확보될 수 있고 석유의 공급자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두개油田의 발견이 유럽인들에게 준 영향은 예상외로 커다.

그러나 이 수년동안에 일어난 최대의 사건은 사하라에서의 新石油州의 발견이었다. 알제리아領 사하라에서 멀어진 2개의 다른 지역에서 1956년에 중요한油田을 발견한 것은 국가자본이 참가하고 있는 많은 프랑스회사들이었다. 광활한 사막의 다른 지역 -스페인領, 모리타니

아, 리비아, 이집트-도 곧이어 석유지도상에 등장하였다.

전부터 사하라는 석유매장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지질학자인 월레스 프랫트의 名著「世界의 石油地圖」 1951년판에는 사하라의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았다.

大西洋에서 紅海로, 그리고 알제리아에서 차드에까지 펴져있는 세계 최대의 사막에서는 특별한 徵候도, 분출하는 석유도, 또는 불(火)의 샘(泉)도 결코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만 지하 수천미터의 深層에 숨겨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寶物을 밝혀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하라의 석유발견은 진정한 처녀지에서의 순수한 승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北아프리카는 전부터 탐사자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모로코와 北部알제리아에서는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장량이 적은 油田이 발견되는데 지나지 않았다. 紅海 근처의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인들의 사하라사막 석유탐사성공에 의해 무한한 사막에 대하여 다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뒤이어 탐사된 리비아에서도 大油田이 발견되었다. 아프리카의 西部에 있는 스페인領의 領地와 東部에집트는 다시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유례가 없는 中東, 경이적인 베네수엘라, 더없이 부유한 美國, 호장(豪壯)한 소련, 풍요한 말라이群島에 뒤이어 근대석유사업의 公式100年祭의 선물로서 세계적 규모의 石油州가 사하라사막에서 탄생하였다. 이렇게 해서 1960년 한해동안 세계에서 처음으로 10억톤 이상의 석유가 생산되었다.

수에즈動亂이 빌발한 결과, 각국은 다투어 석유탐사에 열중하였다. 그것이 美國에도 큰 자극을 주었으며, 세계의 생산량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세계의 확인 매장량도 증가하였다. 확인 매장량이란 가설 또는 희망에 불과한 추정매장량에 대하여 油田의 과학적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채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석유매장량을 말한다.

근대석유산업의 이 100年祭는 시의 적절하게 풍요의 시대와 일치하였던 것이다. 석유는 공급부족에 이어서 풍요의 시대가 있고, 파이후에는 부족사태가 다시 찾아오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浮動하는 큰 파도의 영향을 받

으면서 발전하여 왔다. 이것은 상당히 경비가 드는 탐사는 가격이 하락하는 豐饒期에는 둔해지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不定期에는 촉진된다고 하는 사실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전형적인 움직임은 美國에서 특히 민감하게 나타났으며, 이 나라의 모든 산업에 항상 영향을 주었다.

수에즈動亂에 의하여 석유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통감한 것은 유럽국가들 뿐만이 아니었다. 中東은 물론 베네수엘라도 그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였다. 즉 경제적·정치적으로 약체인 후진국이면서도 귀중한 석유자원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驚亂 또는 惡意에서 부유한 강대국의 순조로운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고도의 생활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외의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문제 전문가이며 민족주의의 신봉자이기도 한 로물로 베팅클이 1958년에 대통령에 취임하여 종전의 독재정치대신에 민주정부를 조직했을 때 가장 중대한 양상을 보였다. 그는 석유경제학자인 호안 파브로 페레스 알폰소에게 그의 정책 수행을 의뢰한 이후 공동의 행동을 취하기 위해 다른 대석유생산수출국인 中東의 중요 국가-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를 단결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가 취한 이 행동은 텍사스에서 교육을 받아 석유문제에 정통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부다라 알타리키의 열광적인 찬동을 얻어 1960년에 石油輸出國機構(OPEC)라고 불리우는 「生產國共同戰線」이 결성되기 이르렀다.

석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960년 이후 美國, 소련, 멕시코와 같이 생산국이자 동시에 소비국인 국가-이중 소련과 멕시코는 수출할 수 있는 잉여석유를 갖고 있다-西유럽제국과 같이 오직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 그리고 OPEC에 가맹하고 있는 대생산수출국과 같이 여러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소비국과 수출국간에는 국제적인 대석유회사-어떤 나라에서는 생산자이며 기타 국가에서는 배급자이다-가 개입하고 있다.

사실 석유는 다른 상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先祖들이 사용하던 등유가 젯트 엔진을 위하여.....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低開發諸國」에 있

어서는 古代에 사용되던 등유가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電氣보다도 항상 많은 사람들을 밝혀주고, 석탄보다도 한층 많은 주택을 난방시키고, 도시가스 보다도 더 많은 음식물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 등유가 굴복하지 않으면 않되는 벽찬 상대로서는 또 하나의 석유제품인 용기에 넣어 판매되는 LPG가 존재한다는 것 뿐이다.

이외에 등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송機關인 ジェット機關연료로서의 용도를 갖고 있다. 「ジェット 엔진」이라는 매혹적인 이름하에 믿을 수 없는 스피드를 가져온 이 연료는 좀더 정성을 들여 정제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들의先祖가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古代의 등유이다.

석유는 또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딴 것으로 교체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예를 들면, 공업국에 살고 있는 젊은 근대적인 여성을 관찰하여 보자. 그녀는 석유로부터 만들어진 수천 가지의 상품이 그녀의 몸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도 않을 것이다.

아침이 되면 그녀는 밝은 색깔의 塗料를 바른 방에서 눈을 뜬다. 그곳에서는 溶劑와 乾燥劑가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녀는 테리린, 데이크린 또는 나이론製의 혼은 커텐을 연다. 그리고 오론, 클리론, 테리린 또는 나이론과 같은 합성섬유로 만든 가운을 몸에 걸친다. 그녀는 시계를 쳐다 본다. 이 시계에는 도어의 핸들이나 자물쇠에 注油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소량의 석유가 윤활용으로서 사용되어 있다. 모든 가구류는 석유제품에 의하여 보호되고, 채색이 되거나 니스가 칠해져 있다.

벽에는 石油系의 착색제를 사용한 그림이 걸려 있다. 많은 프라스틱제품이 그녀의 주위에 존재하고 있다. 스위치, 샤워室의 커텐, 浴室의 깔판, 합성스폰지, 세면기, 비누갑, 칫솔 등은 모두 석유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세수를 하자 마자 곧 그녀는 화장을 시작할 것이다. 크림, 화운데이션, 化粧水, 립스틱, 아이섀도우 및 매니큐어에는 석유가 들어 있다.

그녀는 나이론 스타킹을 신고, 똑같은 나이론製의 속옷을 입는다. 코르셋은 대부분 오론 또는 기타 합성섬유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밖에 스커트는 대개 테리린이나 데이크린 製일 것이다. 모든 섬유는 유행상표의洗剤—모두 石油系—로 세탁된다. 그녀는 구두를 신는다. 이 구두에는 석유에 의하여 처리되고 石油系 왁스로 보호된

유연한 가죽이 사용된다.

또한 모든 마루는 石油系 니스가 칠해져 있다. 부엌에서는 프라스틱제품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프라스틱製의 테이블 내프킨, 또는 얇고 투명한 프라스틱製 식탁보 위에 놓여진 아침식사용의 식기류마저 프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아침의 커피 또는 초콜렛은 천연가스던가 푸로판·부탄과 같은 용기에 넣은 LPG를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지만, 그렇지 않은 한 석유를 사용하여 열량을 높인 도시가스로 끓이게 될 것이다. 테이블 위에는 잉크냄새가 나는 신문이 놓여 있다. 이 잉크의 성분은 석유이다. 식기류는 액체洗剤 덕분에 손쉽게 씻을 수가 있다. 이洗剤의 정체는 석유인 것이다.

重油보일러 또는 석유가스보일러는 이상적인 실내온도를 유지시켜 준다. 더우기 여름에는 에어콘이 설치된다. 美國 특히 美國의 西部지방에서는 거의 95%가 석유에 의한 發電이다. 電力의 100%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도 많다. 유럽에서는 석유에 의한 發電의 가능성은 30%~50% 사이다.

쇼핑하러 가기전에 이 부인은 프라스틱製의 턴 테이블 위에 석유로부터 만들어진 LP케코드판을 옮겨놓고 음악을 듣는다. 그녀는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거의 파라핀만으로 만들어진 밝은 색깔의 양초를 준비한다. 외출할 때 뿌리는 소량의 휘발성 살충제는 파리나 모기를 퇴치하며, 이 때문에 가정은 청결하고 조용하게 보호될 것이다.

앞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기로 하자. 그녀는 차를 타고 간다. 자동차의 라지에이터속에는 不凍液—石油—이 엔진을 보호하고 있다. 엔진에는 휘발유와 엔진오일이 필요하다. 윤활유가 없다면 1분간에 수천번 회전하는 엔진은 곧 타버려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소량의 그레이스로 스프링을 유연하게 하고 사시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아울러 녹쓸고 빼꺽거리는 것을 방지한다.

그녀는 자동차가 석유에 의하여 움직이고 거의 부나(Buna : 獨逸에서 발명된 합성고무)로 만들어진 타이어 덕분에 거칠없고 유쾌하게 아스팔트도로 즉 「석유위」를 달릴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석유로 만들어진 Break Oil로 정차한다.

시장에서는 막 입하된 신선하고 보기 좋은 닭고기를 보고 그녀는 망설인다. 계란, 혹은 짹과 마찬가지로 그

고기들은 파라핀에 의하여 완전하게 보존되었다. 트럭 (이것도 석유로 움직인다)으로 운반해 온 맛있는 과일은 석유에 의하여 成熟되었으며, 또한 석유에 의하여 해충으로부터 보호되었다.

식욕을 돋구는 야채류는 석유로부터 값싸게 얻을 수 있는 비료를 듬뿍 준 토지에서 성장하였다. 만물의 야채나 꽃은 계속 구매욕을 자극할 것이다. 그들은 가장 편리한 그리고 가장 값싼 연료인 重油를 이용, 알맞게 난방된 온실에서 가꾼 것이다.

그녀는 세탁소겸 염색집을 방문, 세탁해야 할 의류와防水해야 할 레인 코트를 맡긴다. 좀으로부터 모직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유가 사용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석유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약국에 간다. 크림, 鎮痛膏 香油, 바세린으로 만들어진 약, 좌약, 파라핀으로 만들어진 위장약, 이들 외에도 매우 많은 의약품이 석유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 만약 가족중의 누군가가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으면, 석유에서 추출된 마취제가 사용될 것이다.

그녀는 책방에서 책과 신문을 산다. 그것들은 석유 덕분에 인쇄되고 또 운반되어 온 것이다. 그녀는 잉크-석유가 아주 큰 역할을 한다-와 자루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펜으로 편지를 쓴다. 그 편지는 트럭이나 우편비행기에 의하여 신속하게 배달될 것이다.

그녀는 영화관에 좌석을 예약한다. 석유 덕분에 필름은 놀라울 정도로 잘 회전한다. 또한 석유로부터는 플라스틱製 필름, 필름을 보호·포장하기 위한 제품 및 現像液이 만들어진다.

일요일에는 가족이 모여 모터 보트나 범선을 타고 물놀이를 하면서 흥겨워 할 것이다. 이 뜻은 물론 나이론이나 데이크런製이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석유의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로 그치기로 하자. 그렇지 않으면 이 시시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석유가 받고 있는 가장 큰 영예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송의 놀랄만한 진보를 가져옴으로써 거리를 단축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이웃으로 만든 것이다.

석유, 그것은 모든 형태의 에너지이다. 그것은 또한 매우 많은 變裝을 위한 原料이기도 하다. 석유의 황금시대는 이들 두가지의 보완적 성질과 함께 기계화된 20세기의 지구상에 말없이 살금 살금 다가왔다. 그리고 우리

들의 생활속에 소리없이 그것도 그후 오랜 기간동안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明日의 傳說—

20세기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으나 석유의 시대가 될 것이다. 석유는 근대문명에 열광적인 리듬을 주고, 사회 풍습을 일변시키고, 새로운 요구를 창조하고, 정책과 국제관계를 변경시켰다. 그것은 前人未踏의 지역의 탐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정글과 사막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처럼 未知와 환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인류는 별씨 恒星으로의 탐험밖에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학자들은 분명히 새로운 에너지 형태로서 종전의 연료와 전혀 다른 연료 및 천연제품과 거의 분별할 수 없는 합성물질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장래 그것들의 응용과 原價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들이 석유를 채굴하여 그것을 1차 및 2차제품의 형태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렇게도 고생을 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것은 석탄의 사용이 이제는 전부하게 생각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핵에너지는 미래의 發電所와 공장을 전환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空氣力學에 근거하여 설계된 자동차의 보네트 밑에서는 核연료가 직접 發電하는 가벼운 原子炉에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휘발유탱크를 대신함으로써 주유소에서의 빈번한 급유를 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될 것이다. 곧 사람들은 미려하고 견고한 프라스틱製의 주택에 살게 되며, 그들의 차는 모든 내구성에서 뛰어난 화려한 프라스틱재료로 만들어질 것이다. 사라져 버릴 산업도 있고 새로 태어날 산업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常例이다.

그러나 곧 도래할 이 새로운 황금시대를 기다리면서 석유는 향후 더욱 오랫동안 많은 용도로 이용되며 우리들의 생활을 만족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新시대를 맞이할 때까지 더욱 많은 다른 新발견이 이루어지고 응용될 것이다. 우리들이 감지할 수 없는 쇠사슬은 과거·현재·미래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인류가 품어온 질문에 대하여 우리들은 항상 과거를 조사함으로써 우선 그에 대한 회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석유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우리들은 이 魔法의 액

체는 인류가 생존하는 한 그리고 인류가 생존할 모든 장소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고대의 공룡·개·연체동물·小魚類의 유해는 인류의 모체인 지구에 의하여 서서히 종류·반추·여과·혼합·압축을 반복하여 왔다. 수억년에 걸친 암흑의 세계로부터 천천히 모습을 바꾸어 다시 나타난 이들 동물은 슈멜人の魔法의 꿈을 만족시키고, 바빌로니아의 밤을 밝혔다.

그들은 페르샤의 조르아스터敎徒에게 魔法의 祈願을 요구하였으며,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병과 공포심을 추방하였다. 그들은 유럽人們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멋있는 아즈테카人们的 향료가 되었다.

소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鍊金術師들에게 있어서 조차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숨겨져 보존되어 온 석유가 갖고 있는 비밀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장기간 지하에 사로잡혀 있던 이 괴물은 땅속에 갇혀 있는 自然의 요새로부터 탈출하면서 우리들의 발밑을 방황한다.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암흑의 지하 우리에서 갑자기 해방된 위대한 석유는 「알라딘의 램프」의 충실한 노예와 마찬가지로 곧 그들에게 봉사한다.

석유는 이 불가사의한 이야기의 주인공과 같이 우리들을 전속력으로 대륙과 바다위를 횡단시키고, 경치를 바꾸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일변시키고, 해저탐험을 위한 潛水를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壮大한 東方의 유례없는 空想에서 탄생된 夜話를 소생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 고대의 공룡·개·연체동물·小魚類의 유해는 인류의 모체인 지구에 의하여 서서히 종류·반추·여과·혼합·압축을 반복하여 왔다. 수억년에 걸친 암흑의 세계로부터 천천히 모습을 바꾸어 다시 나타난 이들 동물은 슈멜人の魔法의 꿈을 만족시키고, 바빌로니아의 밤을 밝혔다. ●

로마와 그리스의 밤을 밝힌 그들의 공포스러운 불은 비잔티움 앞바다의 이스람교도 및 타미엣타와 카이로 앞바다의 十字軍을 격퇴시켰으며, 또한 蒙古人들 앞에서 中國人들을, 페르샤人们 앞에서 印度人들을 도망치게 했다.

그들의 불은 전에 사하린의 아이누들과 아드리아海 연안에 살고 있는 아풀로니아人们에게 공포감과 존경심을 갖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란에 사드 쿨드高地人们에게 성스러운 공포심을 심어주었다.

인도네시아人们과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을 예배하였으며, 잉카人们은 太陽神의 존엄을 한층 더 증대시키기 위하여 불을 사용하였다. 고대 그리스人们에게는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으며, 에집트人们은 魔法의 集大成 속에 그것을 집어 넣었다.

中世의 어수룩한 愚行에서 겨우 눈을 뜯은 유럽人们은 비밀의 액체속에서 병에 잘 듣는 약과 魔法의 중요한 요

매우 많은 驚異를 현실의 세계에 가져다 줌으로써 傳說의 세계에서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였다.

거대한 석유는 유쾌한 시인이기도 하다. 때때로 당장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 내고서는 그것을 우리들의 오락 또는 생활을 위하여 제공해 준다. 우리들은 석유가 20세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것은 이미 우리들의 생활속에 깊숙히 침투해 있다.

따라서 인류가 석유에 대신할 완전한 대용품을 발견하기 전에, 만약 석유를 갑자기 박탈당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고 나는 몇번이나 머리속에 그려보았다.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문명인으로서 새로운 惑星에서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기하기는 하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삭막한 생활일 것이다.

가끔 발표되는 자료에 의하면, 문명세계는 새로운 中

세시대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한 逆行뒤에는 마치 석유를 빼앗긴 세계처럼 항구적인 침체가 찾아올 것이다. 전등과 자동차, 비행기와 기계, 섬유와 수많은 플라스틱제품 등이 없는 세계는 미지의 敵意로 가득찬 세계이며 활기없는 침묵의 세계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예상은 미래의 일과 같이 생각된다. 따라서 석유가 현재 가장 대량으로 소비되고 있는 부분에서 아마도 언젠가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源을 기대하면서 세계는 더욱 많은 석유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세계적 규모에서 본다면, 가까운 장래에 석유가 부족 할 것이라는 염려는 거의 없으나,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어느 공업지역에서는 석유가 이미 얼마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세계의 혈액」을 생산해온 후진지역이 개발되어 그곳에서 상당한 양의 석유가 소비되기 시작하였다. 생산국과 소비국간에는 세계적으로 뻗쳐있는 현대문명의 혈액망인 텅커와 파이프라인에 의하여 끊임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의 유일한 동맥이 절단된다면, 혈액순환이 정지한四肢는 위축되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거인의 약점은 그의 주인인 인간의 약점과 아주 동일하다. 그러나 明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로는 세계 전체에서 향후 적어도 100년간은 석유를 사용할 수 있다. 육상에 있는 것과 해저에 있는 것을 불문하고 지구의 全推積지역이

완전히 발견되면 매장량은 더욱 증가하겠지만, 그러나 5억년간 지구에 의하여 생성된 모든 석유는 길게 보아도 4세기 내지 5세기 후에는 완전히 사용해 버릴 것이다. 그때야말로 확실히 그리고 영원히 석유의 종말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인류는 이 훌륭한 석유속에 포함되어 있는 귀중한 원료를 이용할 때만 석유를 사용하고 그 외의 에너지로서 이용할 경우에는 석유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게될 것이라는 것은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다.

사람들은 검소하게 지내며 석유의 사용을 삼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체품이 없는 석유를 어느 정도 연료로 태워버린 것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들 보물은 다행스럽게도 아직 방대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역사에는 잊을 수 없는 석유의 특징이 기술될 것이다. 그 역사는 석유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2000년 내지 3000년 후에 존경할만한 학자들은 놀라운 인류의 發展史를 살펴보고 경탄할 것이다. 역사의 여명기에 석유의 찬란한 미래를 조금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이 廣物을 이미 이용했던 古代슈멜人們의 훌륭한 敘事詩를 발견하고 우리들이 놀란 것과 마찬가지로. ☐〈끝〉

|||||□新刊案内□|||||

石油製品의 規格과 品質

- 대한석유협회 기획부 편저 -